일터의 차별에 함께 맞서는 경험을 축적해 나가길

-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님 인터뷰

조건희·임용현 상임활동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애써 부정하며 집권기간 내내 성평등 퇴행을 이끌었다. 그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와 삶터에서 숱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어떤 기대와 요구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 모였을까. 성평등 퇴행의 윤석열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난 1월 15일,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실에서 신상아 님을 만났다.

2024년 들어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 8개 지청에서 상담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해왔던 역할, 폐지 이후 체감되는 변화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IMF 경제위기 때 여성들이 '우선해고' 됐습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실직을 구조적인 성차별의 문제로 보았고,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고용평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어요. 그 결과로 2000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게 된 것이고요. 여성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최전선'이 상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건 지난 24년간 민간이 수행해 온 역할을 부정하는 처사와 다름이 없잖아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하면서 장관마저 임명하지 않는 상황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일터에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니까요.

예산 삭감으로 서울여성노동자회도 상담 인력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상담활동가의 근무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밀착 지원도 그만큼 힘들어졌거든요. 현장과 밀착해서 소통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정부의 직

접 운영 방식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령 재판 방청을 간다든가 의견서를 쓴다든가, 이런 활동들은 피해 여성노동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담활동가들이 성평등한 관점, 친밀한 연대를 통해 맺어 온 여성노동자들과의 신뢰관계를 과연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청년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타파를 갈망해 왔습니다. 정권퇴진운동 국면에서 2030여성들이 변화의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목하시나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청년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광장으로 모여든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만큼 청년 여성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해 온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컸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사업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왜 광장에 나왔는지 많이 질문해 볼 참이에요.

사실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단지 이 사회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럼에도 청년 여성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광장에 울려 퍼지는 이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 공간에서도 소거되지 않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고요.

정권교체를 넘어 젠더평등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님. 출처 : 조건희

수년 전부터 여성노동자회에선 근본적인 사회 전환을 위한 기조로 탈성장을 강조해 왔어요. 탈성장이라는 게 단순히 "성장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돌봄이나 연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라든지 임금 격차, 승진 차별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활동 차원에서는 업무상 차별 관련 상담을 법률 대응으로 이어가고 법원 판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재직 중인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거든요. 실제로 성차별 관련 판례가 드문 까닭도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채용 전 면접부터 배치, 승진, 임금에 이르기까지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고용상 차별에 맞서는 사례와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터